



윤활제

이윤수 명동 이윤수비뇨기과병원 원장

한 가정주부에게서 장문의 편지가 왔다. 자신은 폐경기가 지난 50대 후반의 여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은 성 관계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며 지금도 성행위는 계속하고 싶다는 것이다. 다행히 남편은 자기보다 두 살이 많으나 발기력에 문제는 없다고 한다. 옛날에 비해서 횡수는 줄었으나 아직도 일주일에 한번은 성 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신은 젊어서와는 달리 물이 빨리 나오지 않는 바람에 어떤 때는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젊어서는 물이 많이 나와 남편 보기가 창피할 정도였다고 한다. 자신이 듣기로 젤리를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디서 구입을 하며 장단점이나 주의점을 알려 달라는 것이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지만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욕심에 창피를 무릅쓰고 질문한다는 것이다.

과거 우스갯 소리로 여성의 분비물이 적어 고생을 하면 침을 바르거나 참기름(?)을 바르면 된다는 말이 있다. 현대에는 젤리라는 편리한 도우미가 있어 여성의 분비물이 적어 성 관계에 고통을 받을 때 분비물 대용으로 사용된다. 특히 갱년기 여성의 경우 질 분비물이 감소되고 성기 주위의 조직들이 탄력을 잃어 성

관계 시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 젤리를 이용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요즘 오랄 섹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혹시 젤리를 사용하는 동안 오랄 섹스가 이루어지면서 입에 들어가면 해롭지 않나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젤리를 먹게 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

일부 여성들은 사용 후에 질 내에 젤리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 우려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 관계를 할 때 사용하고자 만들어진 제품들은 대부분 수용성으로 만들어지며 물에 잘 씻겨진다. 만일 제대로 씻지 못하여 피부에 묻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여성에 있어서 성 관계는 나이를 먹더라도 언제나 가능하다. 단지 폐경기 이후에 성 관계가 뜸한 이유는 호르몬 부족으로 인하여 외음부와 질 주변의 피부들이 굳어지는 까닭이다. 젊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할 때는 질 주위의 피부들이 부드럽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 생리가 끝나면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고 질 주위의 피부들이 탄력을 잃게 된다. 분비물 또한 과거와는 달리 감소를 하는 바람에 과거와 같이 성행위를 하게 되면 통증으로 인하여 거부감만 가지게 된다.

남성들도 상대의 신체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전에 비하여 조금만 더 전위 행위 시간을 길게 한다면 뒤통스레라도 분비물이 나와 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발기에만 급급하여 상대를 기다리려 하지 않는다. 더욱이 연령적으로 남성들도 발기력이 떨어질 시기이다보니 미처 상대를 기다려 줄 수 없게 된다. 이런 때는 윤활유를 사용하면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부드러운 윤활제는 질의 뻣뻣함을 감소시켜주며 상대의 성기가 질 내에 들어올 때 통증을 완화 시켜준다. 상대도 질의 저항감이 감소됨으로서 약해진 발기력이나 저항감없이

상대와 즐길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젤리 대신에 오일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만일 젤리를 쉽게 구입하지 못한다면 대용품으로 글리세린이나 베이비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오일의 경우 뒷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단점이 있다. 수용성인 경우는 관계가 없으나 지용성 오일의 경우에는 신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콘돔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 종류에 따라서는 콘돔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콘돔은 주로 라텍스로 만든다. 일부 오일들은 라텍스를 녹이는 작용을 하기도 하므로 임신이 되거나 성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품화된 젤리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

나이를 먹더라도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즐거운 성생활이 가능하다. 노후의 모든 성 관계는 남성의 발기력에 의존하게 마련이다. 발기력이 약화됐다면 강화시키기 위한 치료를 받으면 청춘을 되찾을 수 있다. 발기를 시키는 약물이나 수술 등은 인체에 위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Z**

